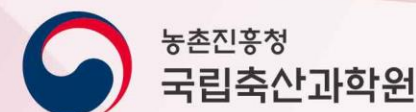


젖소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 확립



추진배경

[현황]

- 유전체 정보(DNA)를 이용하여 어린 송아지의 유전능력 평가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

[필요성]

- 젖소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국내에 적용하여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

주요성과

[기술개발] 젖소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 확립

- (유전체정보) 축산원-정부-개량기관이 협업하여 24,000여두의 유전체 정보 수집
- (유전체검증)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유전체 품질 등 검증완료
- (유전체평가) 혈통 및 유전체 기반 유전능력평가 결과 비교 분석
 - ▶ (기존) 혈통 + 검정자료 → (유전체 평가) 혈통 + 검정 + 유전체 자료
 - ▶ 어린 송아지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: (기존) 25% → (유전체) 60%
- (홍보) DNA로 젖소 능력을 미리본다... 개량속도 4년 앞당겨(농식품부 브리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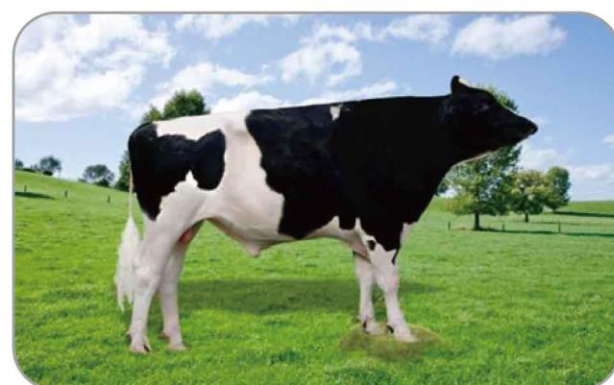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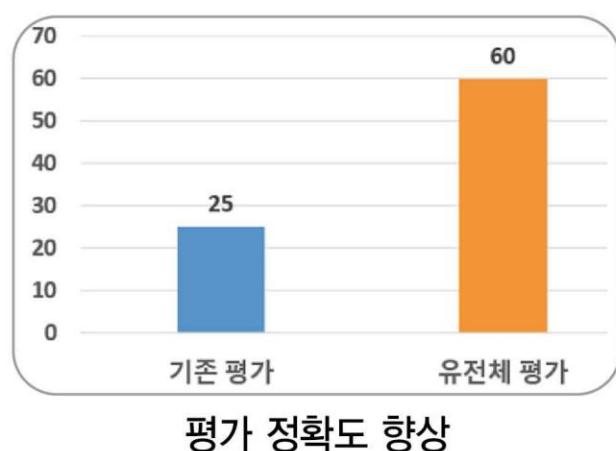
파급효과

[기술적효과]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한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 선발

- (국가단위) 씨수소 선발체계 개선을 통한 선발기간 4년 단축
 - ▶ 보증씨수소 선발기간 5.5년 → 어린씨수소 선발기간 1.5년
- (농가단위) 유전능력에 따른 농가 암송아지 계획교배 및 판매
 - ▶ (고능력우) 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와 씨수소를 교배하여 생산성을 향상
 - ▶ (저능력우) 능력이 떨어지는 암송아지를 조기 판매하여 생산비를 절감

[경제적효과] 저능력우 조기 판매를 통한 불필요한 생산비 절감 : 581만원/두

- 저능력우 판단을 위해 1산까지 1,768만원의 생산비가 소요되지만 이 기간 우유 판매 수익은 1,187만원으로 581만원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 비용을 절감 가능



씨수소 사진



언론홍보(SBS 뉴스)